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약간 맑음

제목 : 야구와 खेल 동생

일요일 아침 나의 사촌인 수현이와 순경이가 왔다. 아침이라
 그런지 정신이 없었다. 먼저 우리는 아파트 구경도
 할겸 밖에서 놀았다. 우리는 밖에서 배드민턴
 과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 옆에서
 야구를 하고 있었다. 그래서 사촌도 같이해도
 되냐고 물어 본뒤, 같이 야구를 했다. 그렇게 놀다
 가 들어오니 벌써 점심은 먹을시간이다. 그래서
 우리는 되는대로 가면을 씌어 먹었다. 너무
 맛있었다. 우리는 배가 꺼질때 까지 컴퓨터
 게임과 핸드폰 게임을 했다. 그다음 배가
 꺼지고 나서 저녁에 죽먹기를 하고 돌아와
 서 삼겹살을 먹었고, 다음에 또 볼것을 약속
 하며 헤어졌다. 이렇게 하루종일 놀아 보니 정
 만 재미 있었다. 나는 책을 읽다가 잠을 잤다.